

“시집가는 날 같아요”… 복구 어르신들 웃음꽃 ‘활짝’

광주 오치복지관 실버뷰티 행사

장수사진 촬영·미용서비스 제공
“있었던 소녀 얼굴이 보이네” 미소
소외계층 자존감 제고 위해 마련

“오랜만에 예쁘게 화장하고 한복까지 갖춰입으니 소싯적 소녀 시절이 떠올라 괜히 가슴이 설레구먼.”

1일 오전 찾은 오치종합사회복지관.광주 복구와 (사)대한미용사회 광주복구지회가 협력해 복구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화·정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버뷰티 추억만들기’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 내내 ‘장수 사진 촬영’과 이를 위해 ‘미용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웃음꽃으로 시끌벅적했다.

복지관 2층 복도는 꽃단장을 받기 위한 어르신들로 북적였다. 대기실에서는 설레는 표정으로 본인의 순서를 기다렸고 이름이 불리면 차례대로 입장했다. 그 모습은 마치 소년·소녀 같아 보였다.

행사는 헤어·메이크업·한복 대여·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멋있어진 모습에 애써 새어나오려는 웃음을 참는 어르신, 자신의 모습이 궁금한지 재촉하는 어르신, 서로의 모습을 칭찬하는 어르신 등 헤어·메이크업이 이뤄지는 행사장은 활기로 가득했다.

거울에 비친 낯선 모습이 맘에 드는지



광주광역시 복구 관내 어르신들이 1일 오전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버뷰티 추억만들기’에 참여해 메이크업을 받고 있다.

한참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어르신도 눈에 띄었다.

소녀처럼 다소곳이 앉아 메이크업을 받는 어르신들은 짧은 순간이지만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다.

박인선(86)씨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화장을 받고 머리로 드라이로 세팅하니 시집가는 것 같다”며 “봉사자들이 친절하게 말도 많이 건네주고 이런 호강을 누릴

수 있어 기분이 너무 좋다”고 웃었다.

박춘순(85)씨도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서비스를 받아 그저 기쁘고 젊은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다”며 “머리도 맘에 들고 사진도 이쁘게 나온 것 같다. 집에 가서 자식들에게 자랑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 어르신은 한복을 입은 아내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다.

나계수(80)씨는 “머느리가 신청해 복구에 아내와 함께 왔다. 며칠 전에 팔손이였지만 사진을 못 찍어 아쉬웠는데 오늘 좋은 기회를 얻었다”며 “한복을 입은 아내 모습이 아름다워 보기가 좋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사)대한미용사회 광주복구지회 전문 미용사 40여명이 참여해 관내 어르신들의 추억 만들기에 힘을 보

탤다.

미용 봉사자들은 시종일관 미소를 지으며 오랜 시간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미용사 김도현(63)씨는 “메이크업을 받은 어르신들의 ‘설렌다’, ‘고맙소’ 등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며 “평소 어두운 표정이 아닌 소녀같은 해맑은 얼굴을 볼 수 있어 기쁘고 어르신의 모습이 한 명의 여성으로 느껴져 보람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실버뷰티 추억만들기’는 복구가 구비 1000만원을 투입해 올해 처음 추진했다.

‘미용 서비스’는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헤어 커트 및 염색을 진행했다. ‘장수 사진 촬영’은 사전에 추천받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헤어(커트 및 드라이), 메이크업, 한복 대여, 장수 사진 촬영, 액자 제작을 무료로 제공했다.

어르신 18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0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각각 9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했다.

복구 관계자는 “소외 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계지원 복지를 넘어 뷰티 서비스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현재의 모습을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글·사진=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전남대병원, 복지부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 선정

96억 규모… 광주·전남 혁신 주도
한국 의료연구 새거점 도약 기회

전남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R&D)’에 최종 선정돼 지역 의료연구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1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이번 사업은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의료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전국 9개 국립대병원 중 최종적으로 5개 병원이 선정됐으며, 전남대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에 이어 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됨으로써 연구 분야의 우수한 잠재력을 입증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전남대병원의 ‘광주·전남 융합 코어 기반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은 총 96억원 규모로, 오는 2027년 9월까지 약 2년3개월간 추진된다.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연구개

발기관으로 참여하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도 지원 지자체로 나선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료 연구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통해 추진된다. 먼저 지역의료 연구역량 제고 기반 구축을 위해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한 병원 내 코어 퍼실리티(Core Facility·거점시설) 장비를 구축해 지역 연구자들이 최첨단 연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전남대병원은 유전체빅데이터, 세포유전자치료, 바이오이미징 코어퍼실리티를 올 연말까지 구축하고 운영 인력을 충원해 2026년부터는 개방, 운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지역 대학병원 중심 연구 지원을 통해 병원 중심의 연구 과제를 구성하고 집중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생의료 분야 특화과제 1과제(3세부과제)와 지역 내 공동연구과제 5과제를 구성 완료했고, 과제개시 워크숍 실시와 더불어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학 연구협력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의학연구의 네트워킹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장비 제공 및 연구서비스 지원을 넘어 지역 연구자들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킹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종합적인 연구 생태계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전남대병원의 이번 사업 선정은 지역의료 발전에 큰 의미를 갖는다. 지역 국립대병원이 단순한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을 넘어 지역 의료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광주·전남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연구개발 컨소시엄으로 결합함으로써 지역 내 의료 연구 자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연구 모델을 구축하는 선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신전남대병원장은 “연구중심병원 인증과 더불어 본 사업 추진을 통해 광주·전남 지역이 대한민국 의료연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지역의 의료 현안 해결과 동시에 미래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광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준임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광주 요양보호사들 “표준임금제 도입해야”

“사회보험과 퇴직금 대상서 제외”
“최소 생계비조차 충족하지 못해”

노인장기요양제도 17주년인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광주지역 요양보호사들이 새 정부에 표준임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일 광주광역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직시하고 표준임금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문요양보호사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으로 사회보험과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내년에 시행되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도 이동시

간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최소 생계비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의 120%를 기본급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며 “정부는 어르신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임금과 처우에 대해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들은 여전히 고된 노동, 낮은 사회적 인식, 열악한 처우에 고통받고 있다. 고귀한 돌봄노동을 존중하는 사회의 시작은 임금 제도부터 마련하는 것이다”며 “요양보호사 부족 해소 방안은 표준임금 제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준 기자

GIST ‘이봄 AI 피아노’, 美 뉴스위크 AI 서밋서 세계 무대 호평

즉석 작곡·연주 기술 관심 집중
의료·모빌리티 등 확장 가능성 주목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학내 인공지능연구소가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2024 뉴스위크 AI 임팩트 서밋’에 특별 초청돼, 국내 최초 AI 작곡·연주 시스템 ‘이봄 AI 피아노’

를 성공적으로 시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봄 AI 피아노는 안창욱 교수가 개발한 AI 작곡가 ‘이봄(EVOM)’을 탑재해 사용자의 감정과 상황을 대화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즉석에서 곡을 만들어 연주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구글 클라우드의 AI 영상 생성기 ‘비오(Veo)’, 코그니전트의

‘뉴로AI’ 등과 함께 전시돼 세계 유수의 기업과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전문화된 대규모 언어 모델(sLLM)과 ‘컨텍스트 맵핑 엔진’이 결합해, 텍스트 대화에서 음악적 창작 요소를 실시간으로 추출·분석해 연주에 적용하는 점이다.

행사 기간 동안 이봄 AI 피아노는 메인

세션과 휴식 시간에 배경음악을 연주했으며, 현장에서 관객과의 즉석 대화를 통해 감성적인 연주를 선보였다.

콜롬비아 국제병원 FCBV의 빅토르 카스티요 회장은 “병원 로비에 이봄 AI 피아노를 두면 환자들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제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고, 도요타 혁신센터의 로만 바실레프 책임자는 “자율주행차에 감성적 음악을 접목한 서비스에 큰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하는 스태그웰

마케팅 클라우드 CTO는 “기술의 일상 친화성과 감동적인 사용자 경험이 인상적이었다”고 호평했다.

안 교수는 “이번 전시는 GIST의 독자 기술을 글로벌 무대에 선보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며 “예술적 표현을 넘어 의료·가정·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 감성적 가치를 더하는 혁신 기술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AI 임팩트 어워드 수상에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노병하 기자